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주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 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2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5월 13일 (토) 제 1921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창조세계 돌봄은 복음적 이슈이다!”

로잔운동, 어떻게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 이슈로 선정되었는지 밝혀

2023년 3월 20일,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창조 세계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발표했다(Urgent climate action can secure a liveable future for all).

보고서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세계 기온의 위험한 상승,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15배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과 수자원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가난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많은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창조세계 돌봄(Creation Care)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긴급한 희망을 가지고 보고서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2018년부터 로잔 창조세계 돌봄 분야 위원장이자, 세계 최대의 기독교 창조세계 돌봄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아로샤 인터네셔널(A Rocha International)의 신학위원장인 데이브 부클리스(Dave Bookless)는 '이 최신 보고서는 우리가 직면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빠르게 대처한다면 희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행동을 취할지 여부가 수백만 명의 삶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변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ow Creation Care Became a Gospel Issue: THE GLOBAL CHRISTIAN MOVEMENT CARING FOR GOD'S CREATION).

복음주의 교회가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인 '창조세계 돌봄'을 항상 지지해온 것은 아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의 핵심적 시기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창조세계 돌봄을 복음적 이슈로 받아들인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케이프타운, 2010)이다.

대회를 앞둔 몇 년간, 에드 브라운(Ed Brown)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 교회를 동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창조세계의 돌봄(Care of Creation)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이는 다소 외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어떤 사람은 브라운에게, '기독교 환경운동가? 그런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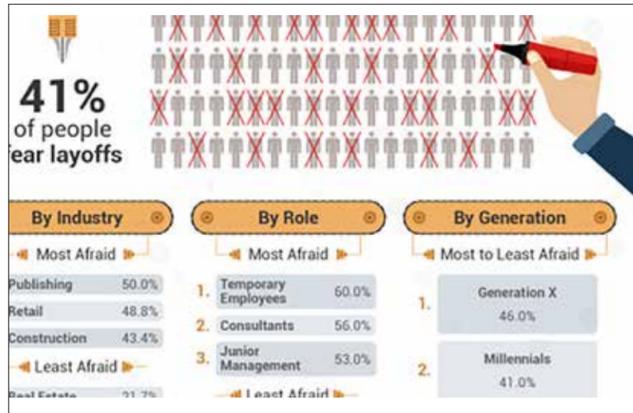
브라운은 이렇게 회상한다. '2007-8년쯤, 나는 로잔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를 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지도자들과 은연중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로잔운동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나는 (로잔운동에) 침투하고 있었다.' 당시 로잔을 이끌던 덕 버설(Doug Birdsall)과의 예상치 못한 연결을 통해, 브라운은 케이프타운 2010으로 뒤늦게 초대 받았고, 그곳에서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가 멀티플렉스(multiplex) 세션으로

제공되었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더 큰 운동을 위해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 언급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창조세계 돌봄을 위해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 케이프타운 2010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창조세계 돌봄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중요

한 것은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그 서약의 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AI 기술 위협 아닌 자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해야!

BBC,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직장인들의 불안과 대응 방안 보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지난 6년간 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34)는 일이 즐겁고 월급도 만족스럽지만 6개월 전부터 자신의 커리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인공지능(AI) 때문이다. 성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한 클레어는 “아직은 기체가 내 업무 품질에 필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ChatGPT가 얼마나 빠르게 정교해지는지 보며 놀란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로봇이 나만큼 내 일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분명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AI가 고용시장에서의 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AI anxiety: The workers who fear losing their jobs to artificial intelligence).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더욱 자주 등장하고,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며, 자신이 현재 보유한 기술이 향후 노동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을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지난달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AI가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3면으로 계속)

		
3면	4면	13면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손기성 목사	C.S. 루스의 생애신학 강태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열)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은혜 창립기념 부흥성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룻기 1:6-14)
2023. 5.18(목) ~ 21(주일)
18(목) 7:30pm/ 19(금) 5:30am, 7:30pm/ 20(토) 6:00am, 7:30pm
21(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4부 11:30am
강사: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이승희목사 프로필 & 저서
현)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역임
마틴 루터킹 특별상 수상(2019)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2018)
대한민국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
-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두란노)
-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두란노)
- 삶의 회복이 필요한 그대에게 (생명의 말씀사)
- 하나님과 함께 걷다 (생명의 말씀사)
-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익투스)
- 기도, 행복을 퍼올리는 두레박 (기독신문사)
- 고통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기독신문사) 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한기홍 담임목사
Anniversary
41
YEARS
1982-2023
주일 |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 금요성경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 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위기(危機)의 가정



김성국 목사 (권장로교회 담임)

지난 6일 토요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다. 이 대관식에는 왕실 가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유명인들이 참석하였고 런던 현지에 그리고 TV나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과연 행복할까? 그날 행사 중에 찰스 3세가 '지겹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화려한 웃을 입고 있는 왕실가정이 매우 일그러져 있음을 본다. 왕 자신이 불륜(不倫)으로 인한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거쳤고 둘째 아들 해리 왕자는 이미 가족과 왕실을 떠났고 그날도 다른 가족과는 달리 평상복을 입고 참여하였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가 쓴 '스페어'는 자신과 왕실의 추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쏟아낸 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을 갖은 특별한 가정이라 하여도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딱하고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었다.

같은 날 텍사스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다. 텍사스주 델러스 교외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가운데 한인 부부와 3살 난 아들이 있었고 5살 난 아들은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변호사와 치과의사인 이들 부부는 주위에서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이 허물어졌다.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의 마음도 허물어졌다. 떠난 이들은 물론이요 총격(銃擊)과 충격(衝擊)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생각할 때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문을 던져본다. 백주(白晝)의 대낮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도대체 이 세상에 '안전한 가정'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가정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눈을 뜨면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영국 왕실처럼 가족 구성원 그 자신이 그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밖으로부터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매일수룩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곱도 스스로 가정의 위기를 자초한 자이다. 자기의 집에서도 그랬고 외삼촌 집에서도 그랬다. 야곱은 뱀엘로 올라갔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 욥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風飛雹散) 되었다. 욥은 예배의 자리로 나갔고 말씀을 붙잡았다. 가정이 분란(紛亂)했던 한나는 또 어땠는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갔다. 기본으로 돌아가니 위기가 위험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다시 지켜야 한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라고 가족의 구성원을 각각 부르는 구절이 있다. 가족 구성원은 각기 고유한 자리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자 시도하면 가정에 균열이 시작된다. 우리 가족을 다른 가족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상처가 깊어진다. '그만 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만 둘 수 없으니 사랑이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거짓에 휘둘리지 말자.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고, 너는 너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야지 '넌 옆집 애 좀 닮아봐라'는 망언(妄言)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디지털 기도 사역, 새로운 사역으로의 초대!

처지리더스킴, SNS 적극 활용한 디지털 기도 사역의 실용 방안 소개

기도하는 교회공동체는 목회자의 방향성을 그들의 우선적 과제에 두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needle-mover)"이다. 기도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교회 바깥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교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공동체 활동이 없으면 위에서 설명한 활동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도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도 사역(digital prayer)"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도 사역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과 문

자로만 이루어진 기도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메일과 문자로 기도하는 것도 직접 기도하는 것처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디지털 기도 사역 역시 직접 만나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 사역이다.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대면과 비대면 관계성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디지털 기도 사역은 영적 실천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인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기도 활동을 하는 교회는 이전보다 최대 10배까지 기도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Digital Prayer: A New Invitation to a Sacred Conversation)

봉사 활동에 있어서

기도는 다른 방법들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캠페인 파트너인 Gloop(Churches Care)에 대해서 보자. Gloop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과 비슷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광고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본 누군가가 기도 요청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면, Gloop에 있는 필자의 팀은 이들을 근처의 교회와 연결해 준다.

개인적 연결된 지역 교회는 그들의 요청을 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 개인과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된다.

진정한 관계성은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교회 참여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콘텐츠를 찾고 있다. 이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런 현상에 대한 방편으로 "중보기도 사역"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 성도들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교회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의 안팎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강력한 디지털 기도 사역이 몇몇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생소하고 새롭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디지털 포맷을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 디지털 기도 사역의 유용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자나 컴퓨터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종이로 된 기도 카드보다 더 투명하게 기도 요청에 대한 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팀(prayer team)에서 기도를 요청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원 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교회가 기도실을 갖고 있는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자는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봉사하고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방법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모든 기도자들을 도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하나님의 섭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전통적 실천이며 거룩한 초대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도 사역은 단순히 전기적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사역으로의 초대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제출서류: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록 바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워크샵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해 줌.

“창조세계 돌봄은 복음적 이슈이다!”

(1면에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과 상속의 권한을 그리스도의 것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안 된다. ...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모든 창조세계를 포괄하는 것이기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복음적 이슈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지구상의 자원들을 파괴하고 허비하며 오염시키는 데 일조하고 무분별한 소비주의에 대한 해악적인 승배를 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긴박하고도 예언자적인 사명감으로 환경 보호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브라운이 꼽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은, ‘창조세계 돌봄은 복음적 이슈’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창조세계 돌봄이 바로 그 복음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2021년 11월, 창조세계 돌봄과 복음을 주제로 하는 자메이카 협의(The Jamaica Call to Action)를 통해 케이프타운에서 시작된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주요 주최자로는 에드 브라운과 데이브 부클리스, 켈 그나나칸(Ken Gnanakan), 폴 쿡(Paul Cook) 및 라스 뉴먼(Las Newman)이 있으며, 라스 뉴먼은 캐리비안(Caribbean) 지역 총무로서 이 모임을 주최하고 로잔 지역 총무들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했다.

5일 동안 50~60여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세계 교회에게 급진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도록 요청하는 자메이카 행동 요청서(The Jamaica Call to Action)를 작성했다. 이 요청서에는 간소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남반구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 미전도 종족 사이에서의 환경적 선교, 음식 제조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원리, 그리고 예언자적 옹호와 같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운은 말한다. ‘이것은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 행동강령이 먼저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을 다짐했다.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후 10년 동안 브라운, 부클리스, 그리고 지역 조직 위원회가 이끄는 로잔 창조세계 돌봄 네트워크는 12번의 회의를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개최했고, 각 지역의 환경 보호 변호사, 목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 과학자들을 함께 모았다.

케이프타운 서약과 자메이카 행동 요청서는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여전히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브라운은 말한다. ‘케이프타운 서약과 자메이카 행동 요청서는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여전히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네트워크는 창조세계 돌봄 이슈가 점차 정치적 문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 세계 교회가 협력과 연합의 정신으로 각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2015년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이 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명칭은 로잔/WEA 환경 보호 네트워크(LWCCN)가 되었다.

로잔 창조세계 돌봄 위원장으로서 에드 브라운의 10년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힘을 보탠 이 운동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공동 위원장인 데이브 부

클리스(영국)와 자스민 썩(Jasmine Kwong, 필리핀)은 WEA의 동료들과 함께 100여개국 이상의 1,700명에게 월간 소식지를 보내며 이 세계적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

LWCCN은 이제 지역 컨퍼런스 단계에서 여러 지역 및 국가적 계획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과의 협력,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온라인 세미나(webinar)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오늘날 문화적으로 더 다양하고, 젊으며, 매우 활기차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나는 일 중 하나는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이 몇몇 주요한 복음주의 선교 단체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OMF의 선교사이자 창조세계 돌봄 분야 공동 위원장인 자스민 썩은 현재 선교 단체 & 창조세계 돌봄(MACC)라 불리는 성장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네트워크 관리를 돕고 있다. MACC는 함께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시는 창조주를 알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10개 선교 단체의 대표들이 매달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썩은 말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성경적인 부르심에 대해 이해하고 교회와 선교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힘쓰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앞에 놓인 어려움은 매우 크다.

부클리스는 ‘로잔 안에서, 우리는 로잔 4의 여정과 제4차 로잔대회가 청년들, 토착민 공동체, 과학자, 그리고 환경 재해 및 변화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세계 돌봄은 21세기 선교를 위한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적 이슈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부이다.

창조세계 돌봄은 21세기 선교를 위한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적 이슈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부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과 각 단체가 창조세계 돌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일의 일부로 통합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부클리스는 IPCC 보고서에 아로사의 선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는다: ‘우리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위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각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이나 사상을 요구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정보에 의해 극단적 갈등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언론의 대표주자적인 팩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전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칼슨은 2020년 대선에서 개표기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를 하였고 제조업체인 도미니언 측에서 명예 훼손을 들어 164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팩스뉴스는 7억8천7백5십만 달러를 도미니언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팩스뉴스가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방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뉴스를 보도했던 당사자인 터커 칼슨과 루퍼트 머독 팩스 회장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에서는 ‘개표기 조작설은 헛소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보낸 뉴스가 가져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잡아 두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내 보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점점 더 갈등과 분열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팩스뉴스와 반대편에 서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CNN 측에서도 스타 앵커였던 돈 레몬을 역시 해고했습니다. 돈 레몬은 자신이 흑인이고 동성애자라는 소수성을 내세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몬은 지난 2월에 공화당 대선 주자 중의 한 사람인 니키 헤일리(51) 전 유엔 대사가 ‘75세 이상된 정치인들은 정신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바 이든 대통령을 공격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전성기는 20-30대, 잘해야 40대인데 (51세인) 니키 헤일리는 전성기를 지났다’고 언급함으로써 여성들로부터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진지함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뉴스로 언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뉴스를 인공적으로 조작하거나 가공해서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한 토론과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지층이 좋아할 가짜뉴스를 만들어 끊임없이 공급하는 언론사와 유튜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며 객관적인 사실을 신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다양하면서도 정직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분열된 우리 사회 속에서 다시금 새겨봅시다.

시론

진리와 자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해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분야라고들 합니다. 이 현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특정한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그 배우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각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이나 사상을 요구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정보에 의해 극단적 갈등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언론의 대표주자적인 팩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전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칼슨은 2020년 대선에서 개표기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를 하였고 제조업체인 도미니언 측에서 명예 훼손을 들어 164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팩스뉴스는 7억8천7백5십만 달러를 도미니언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팩스뉴스가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방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뉴스를 보도했던 당사자인 터커 칼슨과 루퍼트 머독 팩스 회장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에서는 ‘개표기 조작설은 헛소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보낸 뉴스가 가져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잡아 두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내 보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점점 더 갈등과 분열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팩스뉴스와 반대편에 서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CNN 측에서도 스타 앵커였던 돈 레몬을 역시 해고했습니다. 돈 레몬은 자신이 흑인이고 동성애자라는 소수성을 내세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몬은 지난 2월에 공화당 대선 주자 중의 한 사람인 니키 헤일리(51) 전 유엔 대사가 ‘75세 이상된 정치인들은 정신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바 이든 대통령을 공격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전성기는 20-30대, 잘해야 40대인데 (51세인) 니키 헤일리는 전성기를 지났다’고 언급함으로써 여성들로부터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진지함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뉴스로 언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뉴스를 인공적으로 조작하거나 가공해서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한 토론과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지층이 좋아할 가짜뉴스를 만들어 끊임없이 공급하는 언론사와 유튜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며 객관적인 사실을 신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다양하면서도 정직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분열된 우리 사회 속에서 다시금 새겨봅시다.

hanks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 8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김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hel@bhc.org / www.bh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특별 미션팀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93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enter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Ri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실비치 Clubhouse 3 room 1(1부)</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협력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2:00(매일)</p> <p>Tel: (714) 446-6202, www.graec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세례기도회: 저녁 8:00 목회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c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Y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히슬러스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E M 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장같이 일어나세”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사람이 중요해! 진짜 사람이 중요해...

목사에게 모성애같은 첫 사랑이 있다. 목사로 부름 받아 첫발을 내딛고 심혈을 기울여 시작한 첫 개척교회에 대한 애정은 모성애처럼 본능적인 사랑이다. 필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창 개발 지역이었던 송파에서 개척할 교회 자리를 매일 일년 동안 찾았었다. 연말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내 기준대로 내 열심내 내세운 것을 회개하고 새해의 발걸음을 맡겼다. 회개 후 3일 만에 신

학교 총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김강도사님... 몇 가정들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가보시겠어요? 예! 가고 말고요! 지역이 어디라고 합니까? 글썄... 송파라던가?' 난 그 때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다. 회개하고 말했더니 3일 만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송파의 사교교회였다.

여섯 부부들은 대형 교회가 싫어서 작은 빛 선교회를 조직하고 조용히 순수한 믿음으로 구제와 전도의 꿈을 안고 기성교회를 떠난 주일학교 교사 부부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철야기도를 했었다. 전도와 구제에 특심했다. 저들의 순수한 열심을 지도해 줄 목사가 필요했었다. 필자는 이렇게 저들과 함께 작은 지하실 방에서 교회 개척되었다. 방석에 앉아

예배하면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4~50명이 모였다. 격렬한 난상토론 끝에 투표하여 방석 대신 의자를 놓았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을 마련할 때에도 험한 산을 넘어야 했다. 건축이 싫고 기성교회화가 싫어서 나온 이들이 다시 방 한 칸 전세할 전셋돈 건축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갈등을 안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집사 한 분이 부부의 의견다툼 과정에서 뇌출혈로 생명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지진이 터지는 충격을 안아야 했다.

스타트 멤버들은 자신들의 작은 빛 선교 구현이 깨어지고 교회주의(?)로 치닫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노골적으로 젊은 목사에게 쏟아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도와 구제는 열심이어서 감사했다. 그 때 겨우 주일출석 장년들이 60여명 모일 때였다. 2천명 총동원 전도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다.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로 1,657명이 모였고 550명이 결신했다. 이런 열심으로 3년이 지났을 때엔 주일출석 장년만 270여 명이 회집했다. 겉 모습은 성장인데 내부에서는 텃새와 철새들의 갈등이 점점 깊은 골을

만들어 갔다. 제직회만 열리면 무법천지 독단적인 횡포가 시작되었다. 젊었던 목사는 내심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단절하고 더 어려운 이민교회를 찾아 떠남으로 3년 반의 개척 목회를 내려놓았던 것이다.

개척목사가 떠난 후 교회가 공중분해 되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함께 출발했던 여섯 가정이 두 가정만 남기고 뿔뿔히 흩어졌다. 남은 두 가정이 굳세게 40년을 지켜온 오늘의 현실은 시작할 때나 오늘이나 작은 건물 3층에 여전히 단칸 셋방 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을 때마다 두 마음이 갈등으로 찾아오곤 했다. 결단을 잘 했다는 생각과 그 때 함께 시작했던 이웃 교회들의 성장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쉬움과 약간의 후회감도 동시에 솟아나곤 했다.

그 시절 같은 노회의 선배였던 옥한흠 목사님도 은평교회(사랑의 교회 전신)를 개척하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김목사! 어때? 개척 멤버들이 어때? 사람이 문제야! 사람...' 옥 목사님도 평신도 깨우는 교안을 집필을 시작하면서 성공 케이스를 기대하면서 한 부부에

게 집중적인 양육 훈련의 공을 들였지만 결국 실망을 안고 허탈해 하던 시절이었다. 목회는 사람없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성패가 달랐으니 과연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 시절 그 지역에서 만나교회, 수동교회는 작은 예배당 건물에서 출발했고... 새벽교회는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을 했었다. 임마누엘교회는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고, 명성교회도 명일동 버스종점 2층에서 시작했던 즈음이었다. 강남과 천호지역이 함께 모두 개발되던 시절이었다. 우리교회는 석촌호수가 가까운 백재고분 앞의 작은 건물 3층과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이뤄졌다. 작은 빛 선교의 꿈이 틀린 것은 아닌데 사람이 중요해!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해! 목회자도, 교인들도 모두가 사람이기에 정말 사람이 중요함을 40년 후 우연히 지나가는 서울 송파 방이동 그 교회 앞을 지날 때 쯤 옛 감성과 오늘의 감격으로 마음이 온통 뻘뻘이 된 하루였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호텔 스위트룸을 얻은 한 남자가 가방을 풀고 있는데 호텔 매니저가 찾아와 인사를 건넨다. 우리 호텔의 최고 자랑인 이 방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집을 풀던 남자는 다시 가방을 싸더니 나가겠노라고 나선다. 매니저가 "뭐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손님"하고 묻자 남자 왈 "내가 집에 싫어서 비싼 돈 써가며 여길 왔는데 집에 온 듯 쉬라고? 난 그리 못해"라고 대답하고 나갔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행복의 출처 무엇이 행복의 출처가 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착각한다. 집이 좀 크면, 원하는 차를 타면, 남편이 잘 벌어오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등등 착각이

"in Christ-주 안에서"라는 말이다. '주 안에 있다'라는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감사도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주안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남편도 아내도 우

본인들은 감사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런 자녀도 하나 남아서 내게 보내주시고, 맡겨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좋은 것, 좋은 상황만 아니라 좋지 않고,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해야 한다. 여기 있는 제 이야기를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으로 본다.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이들도 반듯하고 사모님도 참 좋고, 그런 가요? 그러니 어디 가서 내가 힘들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저도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다. 남들 다하는 자식 걱정 없겠는가? 만약 제가 여러

그게 되는가? 안 된다. 그게 되면 결혼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이혼하고, 30년을 살고도 파탄지경에 이르렀는가? 존중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존중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위계질서로 예우차원에 하는 것도 아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하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채워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서로 미안하게 된다. 그러니 작은 것에 서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존중하는 마음이 커 가면 강압적인 태도가 바

존중하게 되고, 이런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존중 우리는 무엇, 무엇 때문에 내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견디며 살고, 나중에 집장만을 위해 참고 고생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 희생하고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후회한다. 왜?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누리기 때문이다. 아이들만 믿었는데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집장만을 했는데 살아보니 불행하고, 올라가보니 보는 눈이 너무 많아지지더라는 것이다. 그걸 느끼니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 인간적인 헌신은 보상을 누릴 것이라든가 외형적이든 내형적이든 말이다. 그런데 이런 헌신은 약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지속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만큼 살았다고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함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경험하지 못해서이다. 행복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주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요즘 서로 한눈에 보고 반해 결혼하는 사이도 둘 중 하나는 이혼한다는 말이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어떤 조건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관계가 우리 가정이 '주안'에 있는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것인지 말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이전에 서로 모자라도 존중하고, 그 안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과 관계가 아니겠는가?

Word4u@gmail.com

행복한 가정의 조건

골로새서 3:18-21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하고,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직장에서 집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가기 싫어한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집에 가기 싫어하고, 일을 끝낸 부모님들도 집에 가기 싫다고 한다. 여러분 중에는 집에 가기 싫은 사람이 없는가? 혹시 집에 가는 것을 지옥에 가듯, 도살장 가듯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더 이상 집이 행복의 장소, 행복을 만드는 곳이 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 출처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모든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구를 묻는다면 1순위 말씀이 분문일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 먼저 부부간에 관계와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런데 말씀의 형식이 부탁이나 권면의 모양이 아니다. 명령하듯 말씀하신다. 우리가 집에 와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다른 곳에서 그 불편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부부가 할 일과 부모자식 간에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한다. 매우 어려운 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

다. 도움은 될지 모르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갖고 부유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조사결과들이 많은가? 행복의 출처는 외적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부부사이의 돈독한 관계가 외부적인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박스를 접으며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복권에 당첨되어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 났다.'는 기사도 있었다. 서로 의지하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져버렸다. 나는 오늘 신학적 의미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을 찾아보려고 한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에베소서에만 30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리 가정도 주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그저 둘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이 내 능력이나 부모 잘 만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이 주께서 조성하신 은혜라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런 사람, 이런 아내, 이런 자식이 어찌 내게 왔는가?' 원망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난 고국에서 사역할 때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났다. 그분들이 때로는 얼굴이 더 밝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본다. 사람들은 저래서 어찌 사는가, 걱정을 해주지만 정작

분에게 걱정 없는 인간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것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주안에서 있음을 인정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미운 마음이 들면, 내 아내가 때문에 사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다.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남편이기 때문에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마음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반목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도

꾸게 된다. '당연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가장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아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라는 위함만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의무감이 되 버리고, 그 때문에 행복해야 할 관계가 족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조건을 위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에 친절해지는 것이다. 존중하니까 사랑의 헌신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 다. 꼭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신부인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니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저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랑의 헌신

이 가정, 이 자녀,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인정하니

삶의 전쟁, 자신을 복종

삶을 전쟁이라고 하듯이 신앙 생활 또한 전쟁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나오는 것 등이 전쟁 같은 이념의 삶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옛날부터 불통한 인생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부모 원망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성공하는 인생의 3가지 특징도 있다. 하나님께 신실(信實)하고, 이웃에게 진실(眞實)하고, 자신에게 성실(誠實)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축복받은 인생의 출발이 무엇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절로 환경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고, 쉽 없는 사단 마귀의 공격들

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다. 물론, 의인이라도 넘어지고 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편안히 발 뻗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땅에서 적극적인 싸움을 싸우기전에, 영적 전쟁을 먼저 통과하셨다. 광야의 들짐승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기억한다. 사단의 세력을 먼저 결박하고, 삶을 시작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육체

를 것이다. 그때 승리의 빛장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주 단순간결하시다. '자꾸만 눈길이 머무는 문제를 보지 말고, 가장 먼저 여리고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기자는 고백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한분 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와 믿음의 눈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하며, 자식의 미래까지도 담보하여, 그 가정의 가문을 명문가 문으로 세워내는 것을 본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본다는 것, 잘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다. 믿음만 들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들음으로 찾아온다. 신앙의 내공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안되어 있을 때는 가습거리 소문 한마디에도 그냥 우울증이 와 버린다.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타인에 의해 자기 인생이 영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강의하시는 분이 게시록 7장의 144,000의 수를 이스라엘의 남은자로 해석하고 게시록 7장 9절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요? 바로 알고 싶습니다.

- 사우스베이 에서 Kim

144,000의 수

온 땅의 구속받은 자들

A: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의 해석은 지나치고 무리한 해석입니다. 144,000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144,000을 유대인의 남은 자나 구원받은 수로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9절)는 이방인 구원의 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국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이광복 목사는 144,000에 대해 대환난기에 있을 추수의 줄들인 두 증인의 무리로 보고 대환난기에 등장하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추수지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담게목사(전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특별히 구원받은 유대인의 첫 열매로 봅니다. 신천지는 이 144,000을 신천지 집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다 무리하고 올바르게 못한 해석들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신약신학 교수인 래드(Ledd) 교수는 144,000을 12X12X1000으로 해석하여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예다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define total)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고신의 변종길 교수도 요한계시록 7장의 140400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the complete number of God's people)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수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숫자는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찬 모두를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이들 숫자가 144,000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서 4절의 144,000을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보고 9절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파 중에 여기서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144,000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온 땅의 구속받은 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계 7:9절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앞의 4절의 144,000과 동일한 무리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그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계 14:4절에서는 이 144,000의 수를 계시록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시온산에 선 자들 전체를 말하는데 14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라봄, 믿음, 복종과 순종-

로부터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의 표현이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전쟁 같은 삶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들이며, 그 전쟁의 중심에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전쟁 같은 삶을 고백한다. "내 속사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그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영적전쟁의 구체적인 대상까지 지목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1-12)

한마디로,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분명히 존재하며,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제압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땅의 승리도 부재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필승의 삶, 영적전투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 오늘날 다양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들로 실패와 고통을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 혹은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들은 절대로 패배와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고 싶

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연전연패(連戰連敗)의 삶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 보지만, 영적승리가 없는 인생은 수고한 후에 토산(土産)의 썩은 열매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신자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잠, 게으름, 나태, 무절제, 낙심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주간의 첫날 주일에 배에 승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매일 매일, 영적으로 이긴 싸움을 하며 전심전력 세상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이미 영적 사단의 세력을 정복한 후의 삶이기에 너무나 분명한 필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좋은 성도의 삶은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땅 흘러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정복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바라봄의 법칙

성경에는 많은 전쟁, 정복, 싸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다.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승리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보게 된다. 절대적인 승리의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이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보인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리고이다. 너무 강력하고 견고하여서 보기만 해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

바라봄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불순물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관점의 해석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일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핍당이 모세를 낳고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의 아름다움, 순수함을 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름답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핍당을 앞에 두고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과 판단은 다른 것이었다. 갓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먼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를 함께 그려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가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증거도 있다.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을 때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단박에 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름표를 달았을까?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남겼을까? 아니다. 살기위해 갈대상자에 담았는데 어떻게 흔적의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 서든지 감출 수 없는, 평생 그들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은 한가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몸에 새긴 할레라고 할 수 있다. 아브람과 요게벳은 아이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딸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난지 열흘만에 아이의 몸에 말씀대로 그 증표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할받는 것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들 때문에 내 인생의 판이 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남들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잘 들어야 잘 볼 수 있고, 잘 보아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작은 기계장치만 하나 가져도, 그것에 맹신한 나머지, 자신을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처럼 오해하며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본다.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갈대같은 인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전화기와 인터넷부터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본다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승리, 삶의 승리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장벽들, 성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과 유혹하는 것에는 눈을 감아 버려야 한다. 귀를 닫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 높은 성만 보지 말고 그 성을 밟고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철통 같은 요새에서 무기로 중무장하

고 방어하는 군인만 보지 말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가 된다. 모든

인생은 믿음의 크기만큼 이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 가면 결국 「모세」와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 길가에 버려진 돌일지라도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리면 고귀한 작품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우간다 리본

주니어(11학년)가 된 딸은 많은 학업 양과 각각 과목 시험으로 옆에서 내가 봐도 숨차게 학력거리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주니어 프리컬리지에서 하프연주와 여러 컴퍼티션까지 준비하고 무대에 서는 딸을 보며, 대견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크다. 특별히 올해 줄리어스쿨 콘체르트 컴퍼티션에서 1등을 하며, 링컨센터에서 줄리어드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데뷔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가족들도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고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시고

직접 연주회에 참석하셨다. 연주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축하카드와 선물 그리고 아름다운 꽃다발로 아이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셨다.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딸과 함께 정성스런 카드와 선물을 열어보고 예쁜 꽃다발을 화병에 다시 꽂는데, 화려한 색깔과 반짝이는 레이즈의 리본을 풀며 다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감격스런 마음이 들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뮤직디렉터가 함께 교회 모든 예배음악과 음악사역(벨코어, 콰이어, 어린이음악사역)을 섬기고 계신다. Dr. Yang 과 Mr. Paul 이다. 대만에서 유학으로 피바디 음대 오르간박사 졸업 후 우리 교회 뮤직디렉터로 섬긴 Dr. Yang은 지난 2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올해 여름 은퇴하신다. 너무나 겸손하고 항상 성실한 그 분의 사역과 섬김은 나

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 모두 그녀의 은퇴를 아직까지도 실감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뮤직디렉터 Mr. Paul은 우간다가 고향인 젊은 뮤직시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교회를 섬기는 중이며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찬송들을 소개하며 예배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신부와 팬데믹으로 지난 10여 년간 고향 우간다에 가지 못했던 폴은 지난 달 우간다에 방문하고 왔다. 교회와 우리가정도 그의 고향방문을 기쁨과 작은 정성으로 함께했고, 교회의 많은 악보와 책들을 나눌 수 있었다. 항공사에서 무료로 악보와 책을 담은 많은 박스를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폴은 예배시간에 얘기하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분주한 일정가운데 잊지 않고 고맙게도 교회와 우리 가족 각각에게 의미 있는 선물로 고향방문의 기쁨을 나누어주었다. 교회에는 우간다 전통 나무(파피루스처럼) 천연재료를 이용해 만든 천에 쓰인 주기도문 베너를 선물했고, 우리가족 각각에게는 아프리카 동물들 포스터, 냉장고자석, 미니 전통 드럼 열쇠고리, 가족으로 만든 컵받침을 선물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우간다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그의 선물들로 우리는 우간다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공감 할 수 있었다. 내게 준 컵받침은 우리나라 질처럼 베이지색 마른 식물줄기 여러 겹으로 단단하고 야무지게 컵받침을 고정하고 잡아 잡고 소박하지만 귀여운 리본매듭으로 묶여있었다. 수공예로

만든 가족 컵받침도 특이하고 멋스러웠지만 꼼꼼한 손길로 매듭 한 그 작은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푸는데 지구 반대편 우간다의 누군가의 손과 내 손이 맞닿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과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런게 기도나 나왔다. 폴의 손길로 전해진 악보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과 찬양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곳에 늘 함께하길 기도했다. 특별한 날을 더욱 소중하고 빛나게 할 선물과 꽃을 한 번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마무리하는 리본처럼, 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아름다운 매듭으로 엮어갈길 소망한다.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회 수장 찰스 3세 대관식, 종교 다양성 보여준다

7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찰스 3세 대관식은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이 종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찰스 3세는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약속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선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전인 1953년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선언에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종교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찰스 3세를 통해 영국 교회가 왕실과 협력해 대관식에 변화를 줬다고 했다.

실제 70년 전엔 영국 국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유입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59.3%인데 반해 종교가 없다는 사람은 25.1%다.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각각 4.8%, 1.5%다. 이날 보주 홀 박사 반지 등 왕의 물품(레갈리아)을 전달할 때는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건넸다.

또 리시 수백 영국 총리는 힌두교도지만 총리로서 성경 골로새서 1장 9~17절을 읽었다.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과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인 니키타스 대주교가 새 국왕에 대한 축복을 암송하기도 했다. 바티칸이 대관식에 추기경을 파견한 건 약 500년만이다. 성공회 첫 여성 사제도 누가복음 4장 16~21절을 봉독했다.

"美총기범인 한민가족, 아이 생일 옷 바꾸러 갔다가..."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 교외 쇼핑몰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인교포 일가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총기난사 희생자 가운데 한인교포 가족 3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현지 영사관 출장소를 통해 확인됐고, 지역 한인 매체는 이들이 조규성(38)·강신영(36)씨 부부와 그 자녀인 3세 아이라고 보도했다.



8일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영어 이름 실명, 가족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이 손길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다. 이 페이지 작성자 A씨는 "우리는 이 가족의 친구들"이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주 토요일 규(조규성씨)와 신디(강신영씨), 윌리엄(큰아들), 제임스(작은아들)는 앨런 아웃렛몰을 방문했다"며 "윌리엄은 나를 전에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제임스는 3세로,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거기(아웃렛)에

갔다"고 전했다. 이어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며 "신디와 규, 3살 제임스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숨진 조씨·강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어를 더 편하게 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변호사로, 강씨는 치과 의사로 현지에서 자리 잡아 좋은 평판을 받았고, 한인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 등 주변 한인들을 돕는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인 매체 관계자는 "부부 모두 착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지 지인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델러스에서 자란 이민자로서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민법의 가장 열정을 가진 분야로,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저의 경험을 폭넓은 법률 지식과 결합해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려고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또 "여가시간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두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아들은 몸의 부상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엄마가 온몸으로 감싸 안은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6분쯤 달러스 외곽 앨런의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한 무장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범인도 현장에서 사살됐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총격 범이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45도 육박하는 베트남·태국... 방글라데시 도로까지 녹았다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섭씨 45도에 육박하는 이른 폭염이 관측되는 등 동남아시아의 이상기온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WMO)가 올해 하반기 '엘니뇨' 발생을 전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시아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베트남 일간 VN익스프레스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7일 베트남 중부 응에안성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44.2도를 기록했다. VN익스프레스는 "북부 타이호안성에서 전날 기온이 44.1도까지 올라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갱신"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당국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가장 더운 시간대에 실내에 머무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상기온 현상은 베트남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태국 서



부 막주(州)에서는 최고기온이 44.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졌다. 미얀마 동부 한 지역에서도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라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인도에서 지난달 중순 최고기온이 45도에 육박하면서 뭄바이 인근 한 시상식장에서 최소 13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수십명이 입원했다. 말레이시아의 한 11세 소년은 지난달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폭염의 배후에 엘니뇨가 있으며 앞으로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징우 싱가포르 국립교육연구소 박사는 "엘니뇨의 복귀가 임박했고 그 영향으로 강우량이 감소하고 기온이 상승해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WMO는 "올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동남아 국가들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필리핀 국가수자원위원회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깊은 우물을 재가동하는 등 비상계획을 시행 중이다. 필리핀은 2019년 건기와 엘니뇨가 겹쳐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수백만명이 제한 급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도 기상청과 협력해 폐낭섬 상공에서 약물을 살포해 인공강우로 댐에 물을 보충하고 있다.

'학살자' 시리아 12년 만 아랍연맹 복귀... 美 "잘못된 면죄부"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하고 이슬람 수니파 주민을 대량 학살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12년 만에 아랍연맹(AL)에 복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주도한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과 서방은 "학살자에게 잘못된 면책이 주어졌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AL 회원국 외교장관 전체 회의에서 시리아가 22개 회원국 중 13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AL에 복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AL의 주요 의사 결정은 회원국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표결에 부처진다.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랍뉴스는 "이번 합의가 조건부로 성사됐다"고 전했다. 내전과 난민, 마약, 테러 등 문제를 회원국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L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AL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시리아 반군 측은 지지해온 카타르는 회의에서 시리아의 AL 복귀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은 AL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알아사드 정권이 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리아는 AL에 복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랍 동맹국들이 알아사드와 직접 접촉해 시리아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면서 "미국은 이들 동맹국과 궁극적인 목표에서 일치한다"고 했다. 영국 외교부도 "알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무고한 시민들을 굶주리고·살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리아는 2011년 알아사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AL에서 퇴출당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까지 50만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러시아, 우크라 전역에 대규모 '자폭 드론' 공습"

러시아가 전승절을 앞둔 7~8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어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8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공군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하르키우,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테사 지역을 중심으로 16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약 61건의 공습과 52건의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전국에서 최소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전승절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항복을 받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자폭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공격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젯밤 야만인들이 '가미카제' 드론으로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이번 공격에 약 60대의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가 동원됐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36대가 키이우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클리치코 시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수도로 날아든 자폭 드론을 격추했지만 드론 파편에 일부 사회 시설과 소비아토신 지역의 주거용 고층 건물이 파괴됐다. 그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도시의 두 지역에서 5명이 다쳤다"며 "이들 중 3명은 고층 건물에 있다가 다쳐 그중 한 명이 수술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는 이란제 무인공격기 '샤헤드'는 높은 고도에서 기체에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방적 공격용 드론과 달리, 직접 목표물에 충돌하는 공격 방식을 이용해 가미카제 드론이라고도 불린다.

"진짜 전쟁 시작됐다" 푸틴 입에서 결국 나온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침내 전쟁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전쟁' 대신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9일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협조와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우리의 모국에 대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서방 세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확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군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일부 점령지에서 병력 집결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뉴스 채널 CNN은 지난 8일 "러시아가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자국 여권을 가진 주민에 대한 동원을 시작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마리우폴 망명 시의회의 성명을 인용했다.

미국·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5월 8일이다. 러시아만 5월 9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나치 독일은 1945년 5월 8일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에 항복했다. 올해 러시아 전승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두 번째로 돌아왔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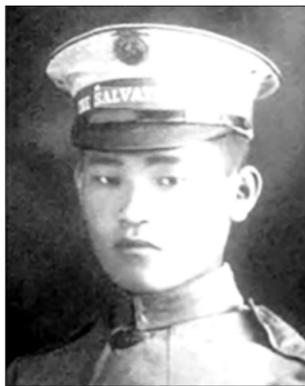
169. 한길수 (1900-1976)

한길수(韓吉洙)는 1900년 5월 31일에 한국 황해도 장단에서 출생했다고도 하고, 개성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다섯 살 때인 1906년에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는 미국인에게 케네스(Kenneth)로 통했고 영어로는 Kilsoo Kenneth Haan으로 썼다. 10살 때부터 와이파 후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다가 그는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던 한인중앙학원에서 공부했고, 17살 때 카리히와이나 소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호놀룰루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농장 청부업자로 일했다. 그 후 그는 하와이 방위군에 입대하여 유창한 영어 실력을 키웠고, 영어 속어와 미국인의 견해를 배웠다.

이규연과 전경준이 주선하여 구세군 대령 카스 부인의 후원으로 1912년 10월에 호놀룰루 구우이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서 한인 구세군 영문이 설립되어 전도하였고, 성령학교를 세워 고아 양육과 국어 교육을 노력하였다. 한길수는 이 영문에 다녔고,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장군에게서 깨끗한 영적 습관과 정밀한 노력이 하늘과 사회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말에 크게 감동받았다.



신한민보는 1925년 2월 19일에 '구세군이 내미 기근 구제'라는 제하에서 구세군 영문의 내지 26일에는 '기근구제금을 다수 부송'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기근 구제금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후 구제와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신한민보 4월 9일 자에 '구세군 정위 한길수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인쇄비 7달러로 말하면 아직까지 지출한 것도 아니었다. 국민보사 인쇄소에서 인쇄인이 소책자 인쇄에 대하여 얼마의 시간과 공역을 들이든지 그의 일공만 주면 지목은 신문사에서 대여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기근 구제금 모집에 대하여 하와이 한인 사회는 동족 상애하는 뜻으로 단결하여 한인교민 총단, 미국 감리교회, 기독교, 구세군, 성공회, 부인 구



세군 영문을 섬겼다.

나라 사랑

여러 해 전에 나누어졌던 감리교회 교인과 한인기독교회 교인이 처음으로 연합예배와 소창회를 개최하였다. 1931년 8월에 앳지기 공원에 3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날 순서들

가 되어 조선 민족 혁명당의 무장투쟁 노선을 지지하였다. 1935년에 중한민중동맹 하와이지부를 창설한 그는 1938년에 워싱턴 주재 대표가 되었다.

1939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국회의 초청을 받은 한길수는 일본의 죄악을 폭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여러 차례 경고하는 서신을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의회에 보내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다.

그리고 세계대전 중 재미 한인들이 재미 일본인들이 격리된 풀로라도 수용소에서 일본인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 국적과 재산을 되찾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1944년

하와이 구세군 영문

한길수는 호놀룰루 구세군 영문에서 사역하였는데 1920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후 구세군 대표로 가와이섬으로 파송받았다. 이후 6년간 구세군 정위로 재직하면서 그는 구세군 목회자로 하와이 각지에서 활동했다.

한인 구세군과 미국 구세군 본영 대표와 구세군과 일본인의 구세군과 기타 구세군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1925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호놀룰루에서 구세군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길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게재되었다. "경제사 귀보 3월 5일(911호)에 하와이 통신에 '구제사업에도 화합이 못되어' 제목하에 민단과 구세군에 불협이 생겼다 함은 오진된 것이다. 당초에 내지 기근 구제금 모집에 대하여 민단 당국과 구세군 간부 간에 상의하여 구세군에서는 1만 한인에게 의복과 식물을 재정까지 직접 수송하기로 결정하여 원만한 효과를 있었던 바라. 구세군 영문에서 구제금 기부한 사람들의 씨명과 금액을 국민보에 공포하였사오며, 일반 출연인의 씨명을 각별히 광포키로 소책자 5백 발을 국민보사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분급하였고,

제회, 적십자회, 남녀청년회 등이 대표가 합석 의논하여 아무 총질 없이 구제금과 구제품을 수합하여 부송하였으며, 2월 13일 이후에 본 구세군에 들어온 백미 2표와 밀가루 9표는 기왕 상악한 대로 고국 기근 구제연합회에 넘기어서 호의 조치하였다. 구제 사업에 이와 같이 화합하기로는 근년에 처음 된 일인데 이같이와 전됨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7년 3월 21일 호황 한인 구세군 정위 한길수"

석 달 뒤 6월에 한국에서 온 한국 기독교 청년회 총무 신흥우, 조선일보 기자 김양수,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연희전문학교 학감 유옥겸 그리

한길수가 맡았다. 한인기독교회 이윤직 목사가 기도하였고, 감리교회 변흥규 목사가 설교하였으며, 미주에 갔다 온 강영각이 청년 운동에 대하여 연설하였고, 이어서 소창이 있었다.

석 달 후 만주사변이 일어난 가운데 1931년 11월에 호놀룰루 스타 블레틴에 정두옥이 설립한 국민회 선전부가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하는 호소문을 게재했을 때 회장 정두옥, 한국부위원 승용환, 원동부위원 김현규와 함께 구미부 위원으로 한길수가 소개되었다.

2년 후인 1933년에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워싱턴 대표

여 1956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거주 산호제에서 춘경 회사를 세웠다가 1969년에 은퇴한 후 거주 산타크루즈 인근의 작은 해변 도시인 카피토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1976년 7월 1일에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했다.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가 되었으나 한길수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 양국을 위한 이중첩자로 활동한 것이 문제 되어 서훈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구세군 목회자로 하와이 각지에서 활동 일본 진주만 공습 경고 서신 미국정부에 전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3-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탄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7:00(목) 세백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8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6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emistry, VA 20152</p>	<p>일산사 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8장 회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3)

교리 6 적용: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신다.

3) 회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변명들에 대한 답변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치 당신이 이 시간에 당장 죽는다고 가정하고서, 왜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빠져 나와 오늘 당장 회개할 결심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라. 당신은 거절하거나 지체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변명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매일 듣는 것은 타당한 이유들 대신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이야기들인가! 이것을 낱알이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들의 필요 때문에 말하겠다.

* 반대 1: 회심한 사람만 구원 받는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닌가?

* 답변 1: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백만의 회심한 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아직 소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 반대 2: 지옥에 가도 친구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 답변 2: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라.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

멸망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옥에는 죄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속임수이다.

* 반대 3: 성도들도 죄인이 아닌가?

* 답변: 회심한 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기는 한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는다. 회심한 자들은 큰 죄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결점에 대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이들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 반대 4: 신앙인들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들도 똑같이 실수하지 않는가?

* 답변: 신앙인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도 외식자가 있지만, 그들은 회심한 자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증명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성도들을 비난할 뿐이다.

* 반대 5: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회개해야 하는가?

* 답변 5: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큰 죄이다. 다른 사람들과처럼 여러분은 마치 육체를 따라 나지도 않았고, 육체를 따라 살지도 않은 자 같이 말하고 있다.

* 반대 6: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나를 정죄하는가?

* 답변 6: 죄에 대한 무감각이 죄의 깊이를 보여준다. 당신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무시하는 것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날마다 당신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해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바로 당신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죽은 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느끼

지 못한다.

* 반대 7: 회심 같은 고차원적인 문제는 사람들을 골지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 답변 7: 회심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복된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미친 것보다 더 미칠 수 있는가? 사람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 회심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도, 죄도, 그리스도도, 세상도, 자신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성경은 악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들과 말한다. 이 문제를 고차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치 육신과 땅에 속한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다루어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를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만드는 것이다.

* 반대 8: 하나님은 회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

* 답변 8: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성이나 여러분을 가르치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보고 계시는 특정한 섭리의 눈길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부족과 고통을 살펴보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섭리를 믿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런 무신론적인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무의미하게 창조했으며, 무의미하게 유지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

* 반대 9: 회심에 대해 말하지 않던 세상이 더 좋지 않았던가?

* 답변 9: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 조상 때는 더 살기 좋았던 세상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오래된 관습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

리 시대의 악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우리 전 시대의 악함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반대 10: 어느 종교와 방법이 옳은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 답변 10: 길이 많아도 옳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은 길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회심하지 않은 죄인보다 길에서 더 멀리 벗어난 자는 없다. 만일 여러분이 삶이 걸려 있는 중요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떤 갈림길을 만났기 때문에 혹은 어떤 여행객이 짐승들이 다니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보도로 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부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은 가던 길을 중단하거나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더욱 조심스럽게 길을 묻겠는가?

* 반대 11: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도 고통하지 않는가?

* 답변 11: 성도들은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둔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진다. 그때까지 그들은 만족하면서 기다린다.

* 반대 12: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요란스럽게 믿지는 않았다

* 답변 12: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을 거룩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쏟지 않는데도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회심 없이, 또한 거룩한 생활도 없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6) 모든 분야에 멘토가 필요하듯이

지난달에 저희 모임에서는 멤버들이 추천하는 몇몇 싱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마켓이라도 서너 번 볼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전달하는 '장한 어머니'상을 처음 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석하면서, 성장기 자녀를 기르며 애쓰는 어머니들을 보아온 분들이 추천한 분이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힘겨운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멤버로부터 "아주 어렵게 자녀들을 기르는 젊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기금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중간에 추천하는 분 또한 적극 모임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었기에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자신 단체가 아닐뿐더러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라고 하며 반대 의견이었고 다른 한 분은 "어렵다는데 돕지요"라고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내 자신이, 싱글 맘으로 네 명의 자녀를 기르던 숨 가쁜 시절이 떠오르며 "지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작은 단체지만 이런 과외적 지출이 전례가 될 경우 꾸준히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텐데...' 등의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 우리 단체에 협동목사로 계시다가 먼 거리의 사역지로 떠나신 목사님께 의견을 물으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질서는 사랑,공의,은혜, 자비와같은하나님께 속한 속성임에 화평을 가져오지만,무질서면불화,불평, 불만이 온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모든 분야에 멘토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한부모 사역에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눌 멘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한부모 모임 인도자의 경우 대체로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을 지닌 한부모가 맡게 됩니다. 물론 크거나 작거나 한 단체를 대표하는 만큼 영적, 정서적으로 강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혼자만의 상처로부터 완벽한 치유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만큼 신뢰하는 관계 속에 힘이 되어줄 사람, 곧 영적 동료자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만 전하려는 영성을 가진 분이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1-3)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즉,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멘토가 있다면 이는 영적인 보화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한부모 모임 인도자들과서 사역의 조언자, 영적 동반자인 멘토를 갈망하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새이덴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은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Each entry includes the pastor's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20:21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4월22일 LA로 돌아왔습니다. 야기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손자를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알래스카를 가면서 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작년 12월부터 먼저 2달을 와서 야기를 돌보신 사돈들은 "죽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사돈은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으로 상사로 제대한 직업군인입니다.

넘겨받고 사위와 딸은 병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9:30까지 야기를 돌보는데 밤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눈이 매일 쏟아지는데 눈오면 쌓이기 전에 치워야하고 집안에 2마리 개가 있어 매일 개털 날리지 않게 베품 청소를 해야 합니다. 3일을 하니 몸살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두달을 견디어낼까 생각하니 앞이 아득했습니다.

했습니다. "네가 가까운 입고 거룩하게 주일에배드리며 찬송하고 설교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기를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같이 자라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도록 매일 안수기도하며 예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화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맡겨진 이 2달이 이 손자의 일생을 이기는 영적 무장을 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이곳에 단기선교사로 왔구나"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셸폰에있는 예수보혈찬송 메들리 20곡을 계속 틀어놓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정말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솟았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요한복음부터 성경낭독을 틀고 야기 머리에 계속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장차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등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야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사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죽기를 작정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신앙시



강영혜 시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노래

그 땅은 눈물이 모여 붉은 강을 이룬다. 어제는 파라다이스 오늘은 지옥

보았는가, 어린이 눈감은 것을 코로나도 이겨낸 아이 총부리 끝으로 잃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는 어머니 눈물,

온 세상 갖는 것이 꿈이더냐 어머니는 그 아이가 온 세상이 아니더냐

제일 큰 땅덩어리 그것도 모자라 소박한 삶과 터전 송두리째 빼앗는구나

힘으로 온 세상 호령해도 영웅은 될 수 없듯, 호랑이도 어린것을 죽이지 않아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라면 밀린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름 없는 동물로 살아야 되리라

눈을 뜨고 보라 귀를 열어 들으라

힘으로 시작한 폭격 힘으로 멈추어야 할 이유이다

기도하는 호흡으로 통곡과 눈물도 마를 절망의 땅을 회복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강영혜 시인은

25회 에피포도문학신인상 수필을 수상했으며 장한 어머니상, 한미오토모하프연합회(KAAG)를 설립,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www.kaagus.org

CMF선교회 5월정기예배 가져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섭리 깨닫는 성도 되자"

CMF 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 5월 정기 예배 및 모임을 6일 (토) 오후 5시 CMF선교관에서 가졌다. 김인태 전도사(CMF)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양병식 목사 대표기도, 채형병 목사(CMF)가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은혜(창 47:7-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의 삶을 이겨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성령의 눈으로 바뀌게 하셔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느끼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CMF 5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조국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사의 축도로 CMF 선교회 5월 정기예배 및 모임을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various regional churches such as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and others, each listing their pastors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

뉴욕미션과이어 & 챔버오케스트라, 뉴욕새교회 찬양대가 함께하는 선교음악회가 뉴욕새교회(담임 이성희 목사)가 주최하고 뉴욕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의 후원으로 6월 11일(주일) 오후 5시 뉴욕 새교회에서 개최된다.

▲ 문의: 뉴욕새교회 917-921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찬양제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 권사) 12주년 기념 찬양제가 6월 18일(주일) 오후 6시 링컨센터에서 '천지창조'를 주제로 공연된다.

▲ 문의: 행사위원장 유성중 장로 201-286-5866, 단장 윤다이나나 권사 917-595-6924

퀸즈장로교회, 2023 여름성경학교 'STELLAR'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3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STELLAR"라는 주제로 6월 29일(목)-7월 1일(토)까지 열린다. 등록기간: 4/30(주)-5/28(주)

▲ 문의: 퀸즈장로교회 718-886-4040

워싱턴 베다니장로교회 장학생 선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자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재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오고 있는 베다니장로교회(담임 김영진 목사)는 올해도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꿈을 품고 학업에 매진 중인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대상: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풀타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제출서류: 신청서, 추천서(가족 제외), 성적 증명서 혹은 대학 입학 허가서 웹사이트: www.bethanyusa.org (신청 서류 다운로드 가능)

▲문의 및 서류 제출처: bethanyusa.scholarship@gmail.com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5기 종강식

10주간 교육일정 후 8인 수료, 온두라스 단기선교 파송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 제35기 종강식이 5월 2일(화)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종강식에는 8명이 총 10주간의 교육일정을 수료했으며 온두라스 단기선교 파송식도 진행됐다. 뉴욕실버미션학교는 지난 2월 28일에 제35기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총10주간 선교관련 이론 및 언어 등을 교육했다. 한국 방문 중이었던 회장 김재열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생 후반을 복음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격려하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지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김경열 목사(훈련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대표기도 노재화 목사(전 성경대학장), 성경복동 황달연 장로(이사),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내가 너를(로마서 4:17-

22)"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이라며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자"고 전했다. 이어 황규복 장로(이사)의 헌금 기도 후 김재호 목사(필리핀 선교사), 박현영 목사(새소망교회 담임), 이지용 목사(뉴욕게셋마네교회 담임)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했다. 김홍석 목사(뉴욕목사회장)의 축하 메시지 후 테너 김영환 전도사가 '선교사의 노래'를 찬양했으며 찬양사역자 송금희 강도사의 축가, 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의 선교무용이 공연됐다. 이어 실버미션찬양단(지휘 문삼성목사)이 축하 찬양을 했으며 광고 이형근 장로(사무총장), 축도 문덕연 목사(이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실버미션학교 35기 종강식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효신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효신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이웃에게 기쁨이자 자부심이 되는 교회되길..."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39주년 창립 감사예배를 4월 16일(주일) 본당에서 드렸다. 예배시간을 통해 김광선 목사를 비롯한 방직각 원로목사와 시무장로, 어린이부터 출석 중인 최고령 성도, 청년 세대와 영어예배 성도의 교회 대표들이 강단에 올라 케익 커팅을 하며 교우들과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세례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창립예배 후, 10여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각 소그룹에서 준비한 바비큐로 식사를 나누며 감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광선 목사는 "어른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창립기념주간에 교역자들과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Long Island에 있는 Old Westbury Gardens로 봄 소풍을 다녀왔다. 아울러 이번 창립 39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선교와 섬김을 함께 진행했다. 창립기념주일 전날 EM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40~50여 세대를 방문, 준비한 선물과 카드를 전달했다.

김광선 목사는 "창립기념주일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심은 하나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이웃에게 기쁨이자 자부심이 되기를 소원하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효신장로교회)

필그림선교교회, 지파운데이션에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에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성금 \$43,058을 전달했다. 지파운데이션은 이번 성금을 지진피해가 심각했던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 등의 2,850명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학용품, 의복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지진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재민 텐트촌에 긴급구호 물품 10톤가량



제 6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교회가 폭력으로부터 피난처 되야"

뉴욕교협청소년센터 & 뉴욕가정상담소, 제 6회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와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가 주최하고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과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후원한 제 6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5월8일(월) 오전 11시 뉴욕교협청소년센터에서 '폭력에 노출된 가정,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주영광 목사(넴치는교회)의 기도,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회장), 이지혜 소장(뉴욕가정상담소)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김수영(뉴욕가정상담소, 주택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정경(뉴욕시/퀸즈 법률서비스, 선임 변호사), 남수경(퀸즈 법률서비스, 이민 옹호프로젝트 책임자) 등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강사 김수영 코디네이터(뉴욕가정상담소)는 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 성폭력, 아시안 증오범죄 현황 및 사례를 전했고, 뉴욕가정상담소의 개입과정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는 "폭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18세 이상의 성인피해자가 24시간 핫라인

(718-460-3800)으로 직접 전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경 변호사(퀸즈법률서비스)는 "교회 안에 비밀유지가 된다면 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수경 변호사(퀸즈법률서비스)는 "이민 신분엔 상관없이 폭력에 대한 것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전했다.

조원택 목사(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는 "교회가 폭력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내담자와의 만남에서도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뉴욕가정상담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한편 본 컨퍼런스를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안재현 목사(충신교회 담임)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미주성결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MOU 체결식

서로 협력하여 신앙과 신학의 성장 꿈꾸

미주성결신학대학교(총장 황하균 박사)와 한국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박사) 간의 MOU 체결식이 5월 3일(수) 뉴욕소망성결교회에서 열려, 두 학교 간의 상호발전과 비전공

유를 선언했다.

MOU체결식은 교무처장 조승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내빈을 먼저 소개했다. 이어 기획처장 황영송 박사의 기도,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과 미주성결신학대학교 황하균 총장이 인사말씀을 전했다. 다음 순서로 협약내용을 황영송 박사가 소개했으며, 이어 양 대학 총장이 내빈과 참석자들 앞에서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양 대학의 발전을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하였다.

축사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기성총회장 김주현 목사, 서울신대 이사장 백운주 박사,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이사장 이대우 박사,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이의철 박사 등이 축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미주성결신학대학교 명예총장 김석형 박사가 마침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제 49회기 효도관광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지난 5월3일 원로성직자와 증경 회장을 모시고 랭카스타 "Sight and Sound Theatre"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효도관광단은 랭카스타로 향하는 관광버스 안에서 증경회장 방직각 목사님이 전한 민수기 20:21-22 말씀을 시작으로 감사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뉴욕교협'이란 제목으로 4행시를 짓기도 했다. 이날

4행시 특등에는 지인식 목사가 뽑혔다. 랭카스타에 도착한 이들은 성극 '모세'를 관람하고 '아미스 타운'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뉴욕교협은 효도관광을 위해 심시일반 후원금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단체, 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3(수) 서울 은혜제일교회 (김종분 목사) 010-4071-3112
2(화) 오전 Miracles 국제선교센터 (새벽별교회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3(수) 오전·후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4(목) 오후 서울 송파한마음교회 (최운원 목사) 010-3496-3686
4(목)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Good TV 부흥협의회
8(월) 오후 인천 기쁨의교회 (이중선 목사) 010-2212-9191
10(수)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중섭) 잠실 롯데 콘서트홀 음악회
11(목) 오후 서울 삼각산 감람기도원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1(목)~13(토)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제 230차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15(월)~16(화) 필리핀 (Philippines) 갈라마시 찬양교회 (하용철 목사)
17(수)~18(목) 필리핀 (Philippines) 갈라마시 원주민 및 목회자 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 목사)

19(금) 오전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시랑 목사) 010-8331-3431
21(월) 오후 서울 한마음교회 (최운원 목사) 010-3224-2345
22(월) 저녁 서울 예배다교회 (정근자 목사) 010-3403-9190
23(화)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수)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5(목)~26(금)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타쉬켄트 주최: 서울대학교 ABKI 사무국
27(토)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사마르칸트
28(주)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부하라
29(월) 귀국 (오전)

31(수) 송주 반석기도원 (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주관: 작은자심선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2023 국가기도의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

“이 땅을 고치소서” ... 성전 기득기도의 함성 울려 퍼져

2023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JAMA, Soon Movement, 세기모(미주서부지부), KACC, 월드쉐어USA가 공동 주최하고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나성순복음교회의 주관으로 4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2023 국가기도의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국유권 목사(충현선교교회)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개회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의 환영인사, 진유철목사의 나성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72번째 모이는 국가기도의 날 함께 참여해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 미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청교도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희석되고 무너져가고 있기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할 때 우리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는 확신가지고 기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유철 목사는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행 12:5)’이라는 제목으로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심어준 미국국가기도의 날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하지만 미국이 윤리, 도덕의 타락과 붕괴로 인종 간 갈등, 증오범죄, 그리고 총기사고가 난무해졌다. 미국의 탈 기독교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가득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란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란의 유무와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닌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첫째 교회가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 이땅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우

리들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한다. △둘째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열린 기도회는 회개운동과 회복을 위하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대표)가 기도를 인도하고 이어서 안현숙 목사(CBS 중보기도팀장), 김보라 목사(순 무브먼트),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한인교회, 미국과 개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인도한 후 미국의 대통령과 임법, 사법, 그리고 군 지도자들을 위해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회의를 위해서 김영구 목사(세계기도일 미서부지부), 한국을 위하여 허준 장로(나성순복음교회)가 각각 기도했다. 그리고 박성규 목사(주님세움교회)가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한 후 김시은 목사(웅기장교회), 오윤태 목사(순 무브먼트),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등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당면한 현안을 위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한 후 샘신 목사(샘 커뮤니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림교회), 김재권 장로(미주 성서화 이사장)등이 뜨겁게 기도했다.

(박준호 기자)



가정선교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8기 가정선교세미나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제8기 가정선교세미나가 6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이재근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 이재근 목사는 “가정이 뭔지 모른 채 살아왔다. 가정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며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사탄의 전략은 과거에는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탄압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니 가정 파괴로 바뀌어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가정의 5가지 본질은 첫째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자녀의 순종과 공경, 부모의 말씀 훈육, 둘째 일 부일처, 곧 부부와 자녀로 구성, 셋째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헌신, 넷째 인간형성과 신앙교육의 장, 다

섯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비한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의 5가지 목적은 첫째 종족의 번식, 둘째 하나님의 영광, 셋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넷째 성적 욕구 표현의 정당한 통로, 다섯째 신앙의 훈련장”이라고 말했다. 성경적 가치관에 관하여는 “첫째 가정은 창조의 공간, 둘째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 셋째 가정은 하나님의 교육공동체 학교”라고 설명하며 “가장 행복한 가정은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가정, 둘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셋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는 가정, 넷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최 대관심사는 영혼구원이며 가정 구원이다.”라고 말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2강 가정선교, 3강 가정문제 해결방안, 서약, 가정선교사 파송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살롬교회 헌당예배 모습

남가주살롬교회 헌당예배

“기도로 나아가갈 때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계승될 것”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 헌당예배가 7일(주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준식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진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살롬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가 “하나님의 눈길에 머무는 곳(대상 21:24-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종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소”라며 “본문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으며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아가 때 축복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곳 예배당에서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 모습으로 아름답게 계승될 것임을 축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의 중심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있는 곳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역사의 중심”이라며 “성령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담임목사와 여러 장로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고 전파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용 목사(PCA서북노회 원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와 박모세 목사(살롬장애인선교회 대표)가 축사했으며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축하했으며 본교회 동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노은규 장로(당회서기)가 비전선 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는 창립11주년 감사예배로 드러졌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토렌스조은교회 5월부흥회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5월부흥회가 19일(금)~21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9일(금) 오후 7시30분, 2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21일(주일) 1,2,3부예배이다.

▲ 문의: (310)370-5500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및 그랜트 신청을 위한 재정 보고 무료 강좌

퀵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및 그랜트 신청을 위한 재정보고 무료 강좌가 13일(토) 12시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 MC 310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제임스 구 교수.

▲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

원하트 미니스트리 워십 컨퍼런스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세리토스 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Faith Center에서 '예배, 내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전체강의와 선택강의로 나뉘며, 김윤진 간사와 채운성 목사, 선택강의는 심택근 형제, 이실라 전도사, 피터박 목사가 담당한다. 컨퍼런스 당일인 26일과 다음날인 27일 저녁에는 라이브워십이 준비되어 있다.

▲ 문의: (213)347-5080

한인기독교회 제9회 장학금 수여식

한인기독교회(담임 송병일 목사)는 제9회 장학금 수여식을 21일(주일) 오전 11시15분 2부예배 시간에 갖는다. 장학금은 총 10명에게 \$1,000씩 지급된다.

▲ 문의: (313)777-6566



민종기 KCMUSA 신임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CMUSA 신임 이사장 민종기 목사 취임예배

“한인 이민자와 교회,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것”

KCMUSA 민종기 신임 이사장 취임예배가 8일(월) 오후 6시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민종기 목사는 “KCMUSA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가지 비전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한인이민자를 섬겨야겠다.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려고 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를 위한 네트워킹하고 좋은자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동일 목사(뉴욕 모자이크교회 담임) 사회로 열린 이사장 취임식은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이사장 추대사 및 위임장 증명했으며,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협회장), 박문규 박사(LA 기운실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이어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 김장교 목사(대구 서성로교회 담임)의 영상 축사가 있던 후 황해경 집사(충현선교회)가 축사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진유철 목사(나

성순복음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취임식 전에 열린 예배는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담임) 사회로 열렸으며 국유권 목사(충현선교회 담임) 기도, 충현선교회 할렐루야찬양대(지휘 이삼열 장로, 반주 김인자 집사)가 찬양했으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승훈 목사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돕기위해 선교단체가 존재한다. KCMUSA는 통계, 자료만들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와왔다”며 “오늘 이사장으로 취임 받은 민종기 목사는 실력 있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다.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전 모세 목사 라하브라 시 조찬기도회서 대표기도

제39회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열린 라하브라 시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라하브라 경찰청 채플린 전 모세 목사가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라하브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날 조찬기도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는데 전 목사의 기도예 이어 제임스 고메즈 라하브라 시장의 환영사, 소노라 하이스쿨 학생인 야나리치의 구약성경봉독, 지역 비즈니스 맨인 폴 페니구아, 위

티어 크리스천 하이스쿨 칼리지 어드바이저 리아 퍼피의 특송, 브렛 버틀러가 키노트 스피치를 맡았다.

이날 대표기도를 한 전 목사는 현재 오렌지 힐스 한인교회 담임, 라하브라 경찰 채플린,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 협회 대표,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총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백경환 목사가 덴버에서 열린 자신의 작곡발표회 마지막 무대에서 지휘하고 있다

덴버에서 열린 백경환 목사 작곡발표회 성황

원로 음악가 백경환 목사가 작곡한 ‘십자가상의 철인’ 작곡 발표회가 지난 4월 30일 오후 4시 콜로라도 덴버 인근의 체리힐스 빌리지에 있는 베다니 루터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합창단이 주최하고 두 미국교회 성가대가 한국어로 찬양한 이날 음악회는 콜로라도한인합창단이 출연하고 소프라노 이지민, 테너 전승철, 베

이스 권영대, 오르간 백보희 씨가 출연했다. 제퍼슨 유니테리언 교회 성가대, 덴버 제자교회 성가대가 참가했는데 이날 청중의 2/3는 백인 교인들이었다. 백경환 목사는 이날 마지막 무대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를 직접 지휘하며 참가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전 모세 목사가 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동탄 어린이 축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 모두 환영

동탄어린이미래재단(하근수 대표)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1회 동탄어린이축제'가 5일 동탄센

트럴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행사장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1만여 명 이상의 가

족들로 꽉 들어차다.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됐다. 8개 마당에 총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 참가자들은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이어서 태권도 시범 공연 등 각종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하 대표가 담임목사로 있는 동탄시온교회의 교인 800여 명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다. 하 대표는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탄시온교회 이름이 아니라 동탄어린이미래재단 이름으로 진행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세상, 신나는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장백석, 튀르키예에 '백석인의 마을' 조성 추진

총회 구호팀 지난 1~6일 현지 방문... '동남부교회재단' 과 협업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중현 목사)는 대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하타이주 일대에 기독교 공동체인 '백석인의 마을' 조성 등 재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예장백석총회 구호팀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하타

이주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백석총회 제2부총회장 이규환 목사를 단장으로 한 구호팀은 가장 피해가 큰 안타키아를 비롯해 컨테이너 하우스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현재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인 천막에 머물고 있다.

백석총회는 튀르키예 구호

파트너로 현지 '동남부교회재단'을 선정해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이형곤 선교사를 통해 이재민 가정에 나눠줄 운동화를 사전 구입했고, 동남부교회재단 사역자 데보라 선교사와 함께 천막촌을 방문, 이재민 가정에 운동화를 전달했다.

향후 백석 총회는 모금된 구호현금으로 '백석인의 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동남부교회재단은 정부로부터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 세계 교회의 후원에 따라 30동 단위의 마을을 조성하는 '카야 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측은 백석총회와 협력할 경우 교회의 후원을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조만간 '백석인의 마을' 조성과 '1노회 1주택 짓기 운동'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아프리카 돕는 한국교회와 선교사 볼 때마다 감사"

윤선희 WFP 한국사무소장, 아직 2억명 가까이 식량난 고통

내전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은 전 세계 식량난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국제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한 이들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4일 윤선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 전 1억3500만명이었던 식량 위기 인구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3억5000만명이 됐다"며 "지난해 WFP가 역대 최고인 90개국 1억5800만명을 도왔지만 아직도 2억명 가까운 이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참혹한 현실을 전했다.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WFP는 유엔 정식기관 중 가장 큰 인도적 지원 기관이다. 식량과 영양지원 긴급구호 등을 진행하며 전 세계 기아 퇴치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적인 유럽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후 주변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WFP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중간역할을 담당했으며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도 도왔다. 윤 소장은 "풍요롭던 우크라이

나가 전쟁으로 인해 바로 수혜국이 됐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으니 식량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WFP는 한국전쟁 여파에 태풍까지 덮인 1963년 한국 정부의 구호 요청에 따라 64년부터 20년 동안 지원했다. 현존하는 유엔 정식기관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단체가 WFP다. 그 후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은 지난해 WFP 공여국 중 10위 안에 들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WFP 수단·남수단·레소토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그는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교회의 활약상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한국사무소장을 맡아 고국에 돌아오기 전부터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꼭 필요한 사역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최근 한국교회 봉사단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위해 20만 달러를 보내줬다. 한국교회 사람과 나눔의 정신이 배고픔에 고통받는 많은 이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

등을 주제로 한 아홉 차례의 강의와 오전·저녁예배가 이어진다. 사흘 동안 참석자들은 '목사와 장로의 숭신수범'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미래 자립교회와 개척교회의 자립' '지구를 살리는 총회' '가정과 교회, 노회' 등 20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교단의 신학을 바로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 1964년 첫 모임을 한 목사장로기도회는 교단 정기총회를 제외한 예장합동 총회의 최대 연례행사이다.

"목사·장로 화합,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흥 실현하자"

예장합동,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8일 서울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오광춘(전남 영광대교회)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산하 전국 163개 노회에서 모인 2000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다. 제60회 예장합동 총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첫날 현장에서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송영식(광명 서광교회) 운영팀(서울 대

한교회) 목사와 김경환(대구 일광교회) 장로가 각각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힘차게 도약하게 하소서' '총회와 노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표로 나서 기도했다. 10일까지 이어진 기도회에서 '장로교 정치제도의 원리와 회의법(한기승 목사)' '누가복음과 기도 신학(한규삼 목사)' '그리스도인의 나눔(호용환 목사)' '다음세대가 행복한 교회(정명철 목사)'

가정의 달에 드리는 시



임영실 권사

엄마

"내딸아 조만간에 남쪽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항상 몸조심 하여라"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나를 먼저 피난 보내며 하신 말, 이 순간이 엄마와 마지막일 줄이야...

엄마는 북쪽에 있다. 아침햇살 가득한 창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햇빛으로 짙은 엄마 모습이 보인다.

엄마는 북쪽에 있다. 귀를 기울여본다. 사랑한다는

엄마의 속삭임이 들린다. 가슴 속에서 뭉클함이 피어난다. 북쪽 하늘의 별도 아름답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엄마의 얼굴이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엄마의 사랑, 엄마 냄새가 그리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바람에 실어 보낸다.

지금 엄마는 남쪽 북쪽 어디에도 없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자 되어 내 맘속에 머물러 있을 뿐...



청년과 밀착+교계 본질 전파... '플리프'의 일석이조

NGO 월드휴먼브리지 자선축제 탐방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만나교회. 이 곳에서 6일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김병삼 대표)가 다음세대인 청년들과 밀착하고, 교계의 본질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청년 문화축제 '플리프'(FLIF·Fashion & Love International Festival)가 그것이다.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모든 부스를 빠진

없이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떤 부스에서는 동행자와 함께 그림을 그렸고, 또 다른 부스에서는 꽃화분을 직접 만들었다. 또 특이한 의상과 소품, 액세서리 등을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참가자들이 허기질 것을 대비해 몇몇 부스에서는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고아들을 돕는 착한 빵집으로 유명한 '래미안 제빵소'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축제의 열기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오후 5시에 더욱 고조됐다. 이 자리에서 김병삼 대표, 배우 김정화와 CCM 가수 유은성 부부 등이 '두 유 노우 기독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부스나 패션쇼 등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밀착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에게 교계의 본질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다음 순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패션쇼가 열렸다. 배우 김정화를 비롯해 선우은숙, 이은형, 임성연, 정나은, 정태우, 황인영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행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별도의 돈을 받지 않고 참여했다. 패션쇼에서 배우들이 입은 의상은 현재적 관점에서 전통한복의 멋을 재해석한 이일순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한편에서 패션쇼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선 공연이 열렸다. R&B 가수인 범키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표곡들을 열창했고, 때때로 관객들에게 따라부르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담임목사님 600명이 '까톡까톡' ...

교회친구다모여 오픈채팅 5천 돌파

온라인사역단체 '교회친구다모여'가 실명제 오픈채팅방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교회친구다모여'는 2019년 4월부터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도 나누고 고충 상담 등 교

류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찬양팀방에는 1300명, 신학생부터 담임목사까지 모인 교역자방과 주일 학교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참여한 지금세대방에는 각각 1200명이 가입돼 있다. 미디어 사역자방(1100명)과 담임목사가 모인 '요셉의창고'방(600명)까지

교회친구다모여가 운영하는 5개 오픈채팅방을 모두 합하면 5000명 규모의 수준이다. 교회친구다모여측은 이에 대해 한국교회에 전례 없던 공식적인 초대형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다.

오픈채팅방은 신장제(<https://link.inpock.co.kr/churchsoulmate>)로 운영된다. '교회친구다모여'는 "이단가입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 중이며 출석하는 교회와 전화번호도 확인한다"며 "가입 인원에 허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교회친구다모여'는 최근 오픈채팅방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자료실'을 개설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는 문서나 양식 자료가 공유된다. '교회친구다모여'는 "미자립교회 등 사역의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 집단이 고충을 나누며 교회가 하나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를 섬기는 이진아 대표를 모시고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위한 나이별 성교육,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랑의 언어, 현재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 전쟁에 대해 나누

기도 하고, 다음세대를 위기로 몰아가는 미디어와의 전쟁과 미국 성교육의 실태와 동성애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해온 주제를 다룬 강의가 모든 참석자에게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온 것은 낯선 제목 때문이 아니라 실재를 분명하게 보

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세속적 세계관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고 마침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과 인간의 양심이 말하는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오랜 세월 인

류 역사 앞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고,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인류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정상처럼 보이는 문화 속에 매일 호흡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일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20대가 되면서 80% 이상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일어날 말세의 현상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코 세상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도록 두고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

는다면 우리도 견고하게 설 수 없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세속적 가치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결국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에 상대적인 우위를 향해 달려가면서 영혼의 가치를 희생시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연구결과는 부모 세대에 빼어폰 경종으로 들려옵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모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의 가슴에 새겨주어야 할 첫 가르침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삶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 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를 세울 때 우리는 밝은 내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 삶도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2)

어머니 죽음과 기숙학교

어머니 죽음은 어린 루이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도 아내를 잃은 충격이 더 컸고 두 아들을 돌볼 여유와 기력을 잃었습니다. 루이스와 형에 의하면 알버트는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냈습니다. 어린 루이스는 그때부터 집을 떠나 기숙학교를 전전하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학교가 아이리쉬에 있는 학교들보다 편리하다고 해서 루이스의 형제는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런던 교외에 있는 왓포드(Watford)에 위치한 윈야드(Wynyard)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에는 소수의 학생만 남아있었던 폐교적전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윈야드 학교는 문제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시설은 최악의

시설이었습니다. 도서관도 없고 실험실도 없고 운동장도 없었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회상하는 글에서 루이스의 형 워런은 옥외 화장실의 악취를 잊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윈야드 학교에 대한 C.S. 루이스의 기억도 형 워런의 기억만큼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못한 기쁨>에서 윈야드 기숙학교를 나치 강제 수용소에 빗대어 ‘벨젠(나치 수용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학교에 가장 큰 문제는 과학한 로버트 캐프런(Robert Capron)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험한 말로 욕하고 학생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매를 맞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흔히 매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이 학교는 곧 폐쇄되었고 교장은 1년 후에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가진 어린 루이스

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벨파스트에 있는 캠벨(Campbell) 칼리지에서 한 학기 공부한 후에 루이스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에 있는 셔버그 기숙학교(Cherbourg House)에 가지 못한 기쁨에서는 ‘샤르프르’ 학교로 등장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물론 대학(Malvern college)을 가기 위한 예비학교였습니다. 미국의 학제로 한다면 셔버그는 사립 중학교이고 몰번대학은 이름이 대학이지만 대학이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당시에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훌륭한 교사들의 지도로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셔버그도 기숙학교였지만 루이스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루이스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했던 것은 학생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 준 이상한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 유모에게 느꼈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느낀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루이스는 서서히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미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비주의와 비밀스런 철학을 준비관적으로 수용하고 심취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루이스는 자신이 불신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술(秘術)에 빠져있었던 셔버그 기숙학교의 여사감을 언급했습니다. 셔버그에서 행복한 두 해를 보낸 후 루이스는 대학 입시 준비학교로 명성 높은 몰번(Malvern)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루이스는 셔버그 기숙학교에서 신앙을 잃은 후 여러 방면에서 회의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시절의 루이스 편

지를 살피면 그는 신앙의 잔재마저 완전히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독과 사생활을 즐기는 루이스에게는 사회생활과 운동을 강조하는 기숙학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변에서 보낸 세월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 두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허락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해서 그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무렵 교육열에 불타던 루이스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좋은 가정교사를 찾았습니다. 루이스의 아버지 알버트는 자신의 은사였던 커크패트릭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루이스의 아버지가 다녔던 러건 칼리지 교장이 커크패트릭(W. T. Kirkpatrick)이었습니다. 루이스 아버지는 옛 스승 커크패트릭을 존경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퇴직 후 진학 지도를 하던 커크패트릭의 행정변호사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다. 루이스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아버지 알버트 루이스는 자신의 옛 스승이자 루이스의 형 워런(Warren)의 진학을 지도했던 커크패트릭에게 루이스의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커크패트릭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아버지는 루이스마저 지도해 달라고 커크패트릭에게 부탁했습니다

다. 워런은 커크패트릭의 지도를 받고 경쟁이 치열했던 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결국, 루이스의 아버지 알버트의 설득으로 커크패트릭은 아버지 그리고 형 워런에 이어 루이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스는 ‘위대한 노크 선생님’ 커크패트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2년 반 동안(1924년 가을부터 1927년 봄까지) 커크패트릭 집에 머물렀습니다. 루이스는 커크패트릭과 행복하게 살면서 커크패트릭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실력이 일취월장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루이스는 철저한 철학적 사유를 하며 신앙적 요소를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커크패트릭 선생은 ‘순전한 논리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논쟁을 서슴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커크패트릭 선생이 집요하게 논리의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30대에 이르러까지 고집스럽게 간직하였던 회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물질적인 세계관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커크패트릭의 지도를 받으며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Kangtg1207@gmail.com

AI 기술 위협 아닌 자원으로 ...

(1면에서 계속)

또한 PwC(영국 런던 본사를 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는 연간 글로벌 노동시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앞으로 3년 후 자신의 역할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브리스톨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엘리스 마살(29)은 “창의적인 업계 근로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객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길, AI 도구의 가격이나 편의성보다 ‘사람이 한 일의’ 진정성을 우선 시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리어 코치 및 인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부 근로자들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기계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두려움에 떠는 대신, 기술과 함께 일할 방법을 배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만약 기계

를 위협이 아닌 자원으로 간주한다면 미래 고용주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는 직원이 될 것이고,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신없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오픈 AI’사의 ChatGPT가 하룻밤 사이에 등장한 듯한 느낌과 매일 더 치열해져 가는 소위 ‘AI 군비 경쟁’ 속에서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커리어 코치이자 미 컬럼비아 대학 소속 캐롤린 몬트로스 강사는 기술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말을 꺼냈다. “AI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몬트로스 강사는 “왜냐하면 AI 기술 진화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형태가 아닌)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불안하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반드시 실존적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게 몬트로스 강사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걱정할지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앞엔 “AI 기술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AI를 배우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두 선택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PwC에서 기술과 신뢰의 관계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톡 라이컨스 연구원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내놨다. “지금껏 기술의 발전은 기술이 ‘사람의’ 작업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그 능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라이컨스 연구원은 “적절한 스킬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시장에서 AI의 입지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선 근로자들 또한 AI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 직원들은 AI란 무엇이고,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즉 직원들은 AI를 피하는 대신 수용하고 교육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라이컨스 연구원은 “자동화부터 제조 프로세스, 전자상거래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계가 요동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몬트로스 강사 또한 실제로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며 일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으나, 새로운 발달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많았으며,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몬트로스 강사는 AI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던 간에 AI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스킬을 개발하고자 행동에 나서면 대신 그저 AI 기술에 대해 불안감만 느낀다면, 오히려 AI 발달보다 본인이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비록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 패닉 상태에 빠질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최근 연구는 로봇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에릭 달린 미 브리검영 대학 사회학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속

도로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 기기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달린 교수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신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근로자는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로봇으로 인한 실직 경험 유무와 관련 없이 현실보다 훨씬 과장돼 있었다. 달린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로봇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과장됐다”면서 “사람들은 현실보다 약 2배, 로봇으로 실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약 3배 정도 현실보다 과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린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적용 및 구현되는 기술도 있지만, “어떤 기술이 무언가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컨설팅 기업 ‘EY’의 피플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스테파니 콜먼 또한 미래의 노동력이 “(인간과 AI가 별개인) 이분법적” 형태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즉, 인간과 로봇의 노동력이 합쳐진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콜먼 책임자는 “인간은 언제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관계 구축, 창의적 활동, 감정적 활동 등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지닌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로봇의 인간 대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자 한다”며 기계와 비교했을 때 노동력에서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몇 주 전부터 클레어는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홍보 산업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현재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알아보고 있다. “예전엔 여러 기술 발전에 겁먹곤 했다”는 클레어는 “그래서 그저 무시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다소 바보 같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시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진 않죠. 제가 (새로운 기술에) 친숙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가라앉았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술이 제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는 중입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권 (롬5:15-17) 찬 431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까? 첫째, 한 사람의 범죄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15) 둘째,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처리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6) 셋째, 나아가 그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인정함으로써 영생

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 은혜받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됨을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늘 영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즐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화 한 사람의 순종 (롬5:18-21) 찬 98장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19) 이것은 대속적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불뱀을 뱉는 것으로, 한 여인, 하와와 범죄를 여인의 후손의 순종으로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둘째, 율

법을 주심도 죄를 더 분명히 드러내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가 왕노릇하던 것이 의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 변화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전합니다.

수 세례의 의미 (롬6:1-3) 찬 147장

구원을 적용하는 일에 세례를 받게 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죽인 것을 믿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나의 죄가 장사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이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곧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목 순종의 종 (롬6:15-18) 찬 387장

구원 생활의 실재를 설명한 사도는 죄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의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첫째, 죄의 종이란? (17) 새사람이 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다시 범합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처리된 죄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나인의 7 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죄로 이끄는 부패성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연단시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육의 요구를 따를 때 죄를 또 범하여 잠시동안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둘째, 순종의 종이란? (16) 교훈의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금 거룩함에 이르는 삶 (롬6:19-21) 찬 499장

사도는 실질적인 거룩에 나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19)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계속 육신을 따르면 결코 그 거룩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새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의 소원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의의인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거룩을 이룹니다. 죄에게 드렸던 지체가 의에게 바쳐짐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우리의 헌신이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19-21) 자신을 불법, 불의, 부정에 바침으로 어둠과 수치 나타낸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의 길은 헌신에 따라 좌우됩니다.

토 주 안에 있는 영생 (롬6:22-23) 찬 493장

한 죄인이 영생을 받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로 시작합니다. (22)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연합하여 어둠에 살던 자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생각과 성품

에 참여한 증거들을 갖습니다. 셋째,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미 믿을 때 얻은 영생은 하나님을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임마누엘의 실재를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 (27)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넘버2 연필과 어머니

다음 주말로 예정된 이사를 위해 지난 주말에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4,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은퇴자 마을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땅이 넓고 나무가 많아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사면에 세워져 있어서 비탈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또 고속도로 옆에 있어서 현관문만 열면 자동차 소음이 들립니다. 새로운 집을 찾다가 은퇴자 마을에서 아담하고 조용해 보이는 집을 찾았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다기에 평지에 지어진 그 집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거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사가요?” 통명스럽게 말할 때 마음이 잔하고 불편했습니다. 시골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판자집에 살며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 사진관을 차렸고 칼라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사진관을 접고 문구점을 시작했던 부모님의 가난하고 힘든 역사를 너무 잘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기에 죄송한 마음이 짜증 섞인 말로 나왔습니다.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 살림살이가 참 많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팔 수 있는 것은 거라지 세일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청에서 거라지 세일 허가를 받으려면 이를 정도 걸린답니다. 주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으며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서를 재작성하고 확인 전화를 했더니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허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늘 그렇게 무뎠던 대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도, 중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유학생 시절에도,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속으로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겠다고 여러번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만만했기 때문인지 또다시 냉랭하고 무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가구와 한 동안 구석구석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차고 앞 드라이브웨이 에 늘어놓았습니다. 주방용품, 전자제품, 악기, 연장, 액자, 책, 장난감, 등등,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조그만 피아노는 너무 무거워서 사진을 찍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더디게 날아가는 내내 좀 더 사실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해를 받들고 장지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의 희생이 생각나고, 어머니한테 다정다감하지 못했던 것이 나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아이들이 사다놓은 넘버2 연필 한 박스를 어디서 찾아 꺼내왔습니다. 24자루가 들어가는 박스에 서너 자루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연필들을 보는 순간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또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에 한 한인 마켓의 푸드코트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어머니가 끓여주신 칼국수가 생각 나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지 세일하는 날 아침 아내가 들고 나온 노란색 넘버2 연필을 보자 평생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생각나고,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감이 다시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연필을 등지고 서서 눈물을 멈추기 위해 애쓰느라, 또 우느냐는 아내의 핀잔에는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부모님은 화곡동에서 문방구점을 개업했습니다. 큰 아들의 야망을 따라 승진문구이라고 이름을 짓고 십여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구류와 잡화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고객은 주로 동네 꼬마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팔 물건들을 대강 정돈해 놓고 집 근처 이곳저곳을 다니며 안내 낫말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로부터 넘버2 연필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연필을 자기 집에 두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웬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고마웠습니다.

한번은 부모님이 아들 가족을 보러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돌아보던 중 한 편에서 문구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넘버2 연필 박스들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구입하시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열대에 있는 대역섯 박스의 연필을 모두 사겠다고 하셔서 “아니, 그렇게 많이 사서 뭘 하려구요?”하고 질문했습니다. “가게에 갖다 놀라구.” 그제야 문구점에서 팔기 위해 연필을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펼쳐진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값을 붙여놓은 물건들을 하나 둘 사갔습니다.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드라이브이 한쪽이 행하게 비었습니다. 이삿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남은 것들은 구세군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할 계획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빠근하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마음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jonk@dbu.edu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케냐

저희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3월 초에 케냐로 돌아와서 아파트를 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3월 27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SEED 지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하기 전에 입주하려고 서둘러 아파트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밀알의 홍보대사인 김해영 선교사가 사는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하게 되어 서로 교제도 하며, 아파트를 비울 때에도 서로 도움을 받고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3월 말에 있었던 지역모임 참석으로 3, 4월 기도편지를 이제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 방문

Call for Africa 라는 이태리 NGO 단체를 김해영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한지 약 13년 정도 된 단체로서 건물과 방과 후 시설과 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체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단체였습니다.

SEED 아프리카, 유럽 지역모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아프리카, 유럽 연합 지역모임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류승렬 목사님, 올네이션교회의 양준호 목사님을 강사로 매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한정훈 선교사님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인 Moravian의 사역지 Hermhut(독일)을 방문하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연합모임을 끝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은 각각 지역 모임을 가지기로 하여 다음번에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 저희는 지역 모임을 마치고 46년 만에 독일을 방문하여 저희들이 근무하던 Wurzburg를 방문하였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던 병원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으로 올라가던 언덕만 남아 있어서 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Uganda 학사 사역

지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몇일 지나지 않아 우간다 학사 사역을 셋업하기 위해서 우간다 Mbale라는 곳으로 가서 학생들을 면접하고 5명을 면접하여 선발하였습니다. 5명 중에 Esther 라는 여학생은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개종한 이유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버림으로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학교에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Esther 학생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Uganda 두 번째 방문

Agape Mission Africa 의 director 이신 유진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가족의 상을 당하셔서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4월 중순에 다시 우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사역할 Rivers of Life 교회와 MOU를 맺고, Agape Mission Africa 와 교회가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중 한명인 Philip 이라는 학생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 퇴원하여 집에 왔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곳을 떠난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우간다 사역의 책임자인 Emmanuel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병원 시설과 의료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계양으로 생각하고 고통이 심해 병원에 갔는데, 아마도 위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보내졌고 집에 온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였고, 교회에서 Sunday school Teacher 로 봉사하면서 앞으로 Chef 가 되고 싶다고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Emmanuel 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시오.

고아원 사역

고아 사역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다른 고아원 방문을 하면서 고아원 허가 받는 일 등 2023년 동안 잘 준비하여 2024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처에 있는 By Grace Children's Home 을 내일(5월 5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

1. 우간다 학사 사역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7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장소를 구하여 Rivers of Life 교회와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2. 마추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고아원 사역이 건물이 잘 세워지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3. 장애인 사역도 김해영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도록

케냐, 양재주 / 양선숙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와기 종족

▲ 인구
약 4,000명

▲ 종교
90% 이상이 천주교와 정령숭배, 개신교는 10-20%

▲ 기타
파푸아뉴기니 마당 주에 위치

▲ 프로젝트 소개
4복음서 및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 와기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변 종족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 프로젝트 진행
봉헌된 누가복음과 청년들이 만든 30여 곡의 종족어 찬양이 교회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창세기, 4복음서, 사도행전과 13편의 서신서가 번역과 점검 중에 있으며, 그림 사전 및 이야기 책들이 출판될 예정이다.

▲ 기도제목

1. 말씀을 번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셀빈, 다간틴, 렉스, 아도르프, 데이빗 리 형제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을 주시도록
2. 번역된 말씀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잘 활용되고, 청년들 안에 복음의 생명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한 복음으로 자라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1994년 미국 시애틀에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민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끌어 주실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청빙요건

- 장로교의 교리와 규례를 준수하며,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영혼 구원과 목양 및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 (M.Div. 이상)하신 분
- 만 40세 이상으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5년 이상(부목사, 신학대학 교수 및 선교사 경력 포함)의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웹사이트(<http://www.seattleonnuri.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목사 안수 증명서
-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추천서 (2인)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5편 (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가장 최근 목회한 교회 주보 1장

보내실 곳

- Email: seattleonnuri4@gmail.com
- 우편: Seattle Onnuri Church (Attn: 청빙위원회)
-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USA
- 제출마감: 2023년 5월 31일

문의 및 안내

- 모든 문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seattleonnuri4@gmail.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접수확인 및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해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seattleonnuri.org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5월 26일(금)
장 소: LaGuardia Plaza Hotel/퀸즈장로교회

예배 축제 위로 계승

환영합니다 welcome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하라
(엡:23)

CHURCH, **BE FILLED** WITH **JESUS** CHRIST EPHESIANS 1: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